

➤ 주말마다 '교통지옥'... 대부도 교통정체 해법은 무엇인가?

## “진입도로가 너무 좁다”... 대부도 도로 현황 긴급 진단

상: “진입도로가 너무 좁다”...대부도 도로 현황 긴급 진단

중: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나... 대부도 도로 신설 및 확장 계획

하: 해결책은 무엇인가... 대부도 교통정체 해법 제시

대부도저널이 대부도지역 교통정체 현상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앞으로 3회에 걸쳐 기획기사를 싣는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상: "도로가 너무 좁다" - 대부도 도로 현황 진단'편을 싣는다.

주말마다 꽉 막힌 대부도...  
관광객은 늘고 도로는 그대로

대부도는 연간 2천만명이 찾는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서 알려져 있다. 관광지답게 주말에는 수십만 명이 찾는 곳이다.

하지만 진입도로 및 대부도 내 도로망은 과거 농·어촌 중심 체제 그대로다. 대부도가 웅진군에서 안산시로 편입된지 32년째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현재 주요 도로는 시화방조제가 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대부도와 육지를 잇는 유일한 대형 간선도로로, 병목 현상이 심각하다. 화성에서 탄도방조제로 들어서는 전곡항로는 그래도 시화방조제 보다는 여유

가 있는 편이다.

대선로, 대남로, 대부항금로는 대부도 내부 순환 및 관광지 연결축으로 모든 구간이 왕복 2차로에 불과하다. 주말·휴일이면 정체는 상습화되는 이유다.

대중교통 부족이 원인이지만 주말이나 휴일인 경우 교통정체로 그나마도 이용객이 꺼리게 된다. 이는 자가용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게 만드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주말과 휴일의 경우 도로폭, 진출입로, 신호체계 모두 교통량 증가를 감당 못 하는 것도 주요인이다.

대부도 지역 주민들은 한결같이 “주말마다 나가지도 못해요”라고 말한다. “몸이라도 아프면 병원에도 못하고 죽을 맛입니다.”라고도 말한다.

관광객은 “왕복 4시간 걸려 한 곳만 보고 갑니다”

이에 대해 안산시는 “도로확장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예산과 절차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곳곳에 이동 노동자쉼터 조성... 네 번째 '힐링' 들어서



이민근 시장(가운데)이 선부동 소재 이동노동자쉼터 힐링 4호점 개소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안산 동서남북에 퍼지는  
이동 노동자 쉼터 '힐링'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

안산시가 이동 노동자의 휴식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산시는 21일 단원구 선부동 1076-13번지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이동노동자쉼터 '힐링' 4호점 개소식을 개최했다.

시는 지난 2022년 거점형인 힐링 1호점(단원구 광덕2로 186)을 시작으로, 2023년과 2024년에는 간이형인 힐링 2호점(상록구 이동 716-7번지)과 힐링 3호점(상록구 성포동 593번지)을 연이어 개소할 바 있다.

이번 힐링 4호점은 약 27㎡ 면적

의 간이형 부스형태로 조성됐다. 이동노동자들의 쾌적한 휴식을 위한 냉난방 시설과 냉온수기,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의 시설을 갖췄고, 출입 인증시스템을 통해 휴일 없이 24시간 무인 운영된다.

이동노동자쉼터 조성 사업은 민선 8기 안산시의 핵심 공약이자, 노동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개선

을 위한 노동친화적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동노동자들의 쉼터 기능에만 국한하지 않고, 무더위와 쉼터 등 기후재난 쉼터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며 공공시설물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 대부도 주민,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가결 촉구

대부도 주민과... 단체들  
탄원서 준비... 제출 예정

안산시가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부도 주민들과 지역 단체들은 해당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산시의원들에게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지 2025년 8월 18일자 1면 보도〉



대부도 주민들과 지역 단체들은 “지금 대부도 경제는 최근 10년 내에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이다”는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처

럼 수십 년간 지속된 각종 규제 조치와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한 지역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8월 중 주민 서명운동을 완료한 뒤, 시의회를 방문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협조를 호소할 계획이다.

탄원서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2024년 3월 25

일 대부도를 방문해 발표한 공약이 명시되어 있다. 박 후보는 당시 “대부동의 규제 완화와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확충하고 농어업 종사 주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며, “수십 년간 방치된 대부동의 발전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들은 이번 조례 개정이 박 의원의 공약을 실현하는 첫걸음이라며, “정당을 초월해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

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주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역사회로부터 더 큰 신뢰와 지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시가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산지 개발 고도제한 완화 (해발 40m → 50m)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상향 △농업 관련 시설 건폐율 완화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4층 → 7층)

△도시형 생활주택 허용 및 주유소 증·개축 가능 등이다.

특히 대부도 지역은 표고 기준 완화와 농업 기반 시설 조정 등으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주민들은 이번 개정이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오는 9월 초까지 심의를 거쳐, 9월 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용방건설산업(주)

- |                 |                |
|-----------------|----------------|
| ■ 토목사업          | ■ 지반조성 포장 공사업  |
| ■ 연약지반 공법 시공업   | ■ 중장비 매매 및 임대업 |
| ■ 파일 항타 공사업     | ■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
| ■ 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업 | ■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

대표 서승대 M. 010.2605.9877

안산시 단원구 구봉길 35 2층





# 안산시, 안산제일 로타리클럽으로부터 후원금 240만 원 기탁받아

## 배상모 회장, 앞으로도 '꾸준하게 지원하겠다' 말해

안산시는 20일 안산제일 로타리클럽(회장 배상모)으로부터 후원금 24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안산제일 로타리클럽은 매년 지역 사회 내 다양한 봉사활동과 나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관내 저소득 가정 아동을 돕기 위한 사랑의 후원금을 지원했다. 배상모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꿈을 키워나가는 아이들에

게 작은 힘이 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봉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민근 시장은 “늘 지역을 위해 헌신과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안산제일 로타리클럽에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함께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기탁받은 후원금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아동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이민근 시장(왼쪽 두번째)이 안산제일 로타리클럽 배상모 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으로부터 후원금 240만 원을 기탁 받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 市, 북한이탈주민연합 안산시지회 호우피해 성금 100만 원 기탁

### 주예림 회장, 특별 모금

안산시는 20일 (사)북한이탈주민연합 안산시지회(회장 주예림)로부터 여름 호우피해 특별모금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안산시는 지난 2015년 설립돼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등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화합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 7월 개최된 ‘제2회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단체가 받은 후원금을 모아 마련됐다.

주예림 회장은 “행사에서 모인 후원금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북한이탈주민들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나눔과 연대에 계속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민근 시장은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신 북한이탈주민연합 안산시지회에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이 호우피해 복구와 지원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받은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에 기탁될 예정이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이민근 시장(가운데)이 (사)북한이탈주민연합 안산시지회 주예림 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으로부터 여름 호우피해 성금 100만 원을 기탁받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 산단환경리더협의회 공식 출범... 친환경 공동 발전 모색

### 이민근 시장“환경오염 저감 시설 개선 지원 등 친환경 경영 적극 지원”

안산시는 지난 19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반월·시화·반월도금 산업단지의 친환경 공동 발전을 위한 ‘산단환경리더협의회’(이하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박은정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산단환경리더협의회 회원사 경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안산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산단환경리더협의회’는 반월·시화·반월도금 산업단지 내 환경배출 사업장과 환경전문공사업 47개소의 경영자가 참여한다. 이를 통해 ▲지역 환경문제 공동 대응 ▲기업과 지자체 간 민·관 네트워크 강화 ▲구역별 면오염도 감소 ▲친환경 경영 문화 확산 및 기업 경쟁력 향상 등을 목표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민근 안산시장(맨 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산단환경리더협의회 출범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협의회는 연 4회 정기회의를 열고 ▲정보 및 기술 교류 ▲기업 규제개선 과제 발굴 ▲면오염원 오염농도 저감을 위한 공동 실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출범식에서 “산업단

지는 우리 경제의 핵심이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문제 해결 역시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과제”라고 운을 뗐다. 이 시장은 이어 “출범한 안산시 산단환경리더협의회가 산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안산시도 환경오염 저감 시설 개선 지원과 환경경영포인트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다양한 기업 지원책을 통해 기업들의 친환경 경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 상록수보건소, 장애인 재활운동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안산시 상록수보건소는 하반기 장애인 대상 재활운동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모집 프로그램은 ▲경기도남부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연계 장애인 재활운동교실 ▲장애인 순환운동교실 ▲장애인 방문재활 등 4개다. 재활운동교실은 다음 달 2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8회 운영된다. 경기도남부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협력한 가운데, 경기도 물리치료사협회 소속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그룹 재활운동이다.

순환운동교실은 장애인과 예비 장애인을 기수별 5명씩 소그룹으로 구성해 실시된다. 상반기부터 주 2회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2기수를 대상으로 12회씩 운영할 예정이다. 순환운동교실에서는 대상자들의 신체적 능력에 따라 근력과 유산소 운동을 반복적으로 실시해 신체 각 부위의 균형 있는 운동능력 향상을 돕는다.



상록수보건소 재활보건실 내부 모습이다. 윤성용 기자

방문재활 프로그램은 연중 운영된다.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방문재활 담당자들이 직접 찾아가 ▲재활 소도구 등을 이용한 재활 운동법 지도 ▲낙상 예방 교육 ▲소근육 운동과 정서지지를 위한 공예 활동 등을 실시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모집 마감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진행한다. 프로그램에 참가를 원하거나 프로그램에 대

한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 재활보건실(031-481-5958, 598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진숙 상록수보건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장애인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 9월 3일까지 2025년 사회조사 진행 정책 수요 등 파악

안산시는 9월 3일까지 ‘2025년 안산시 사회조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시민 생활 수준과 만족도 등을 정확히 진단해, 정책 개발과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안산시 표본으로 선정된 1,20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전원이다. 조사는 조사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한 가운데 이뤄지며, 응답자가 부재중이거나 요청이 있는 경우 인터넷 조사 방식을 병행해 응답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는 ▲복지 ▲주거·교통 ▲문화·여가 ▲소득·소비 ▲교육 ▲일자

### 단독

## 안산제일 로타리클럽 광덕고와 인터렉트 협약식 가져



국제로타리 3750지구 안산제일 로타리클럽(회장 배상모)은 8월 18일 광덕고등학교와 인터렉트 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태창 기자

국제로타리 3750지구 안산제일 로타리클럽(회장 배상모)은 8월 18일 광덕고등학교와 인터렉트 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활동이 뜸했지만 올해부터 새롭게 지원체계를 갖기 위해 협약식을 가진 것이다. 이날 협약식으로 안산제일 로타리클럽은 광덕고등학교 과학탐구 동아리 학생들에게 사업비를 지원하

게 되며 향후 과탐동아리활동 및 국제로타리 인터렉트대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협조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배상모 회장은 “그동안 활동이 뜸해지면서 지원이 끊겼던 과탐동아리활동에 대해 다시 지원을 시작하는 자리인 만큼 늘어난 웬지 기분이 좋은 날이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리·노동 등 6개 부문 55여 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전덕주 행정안전교육국장은 “사회 조사는 시민의 의견을 데이터로 수집해 시정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절

차”라며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 안산시의회, 제298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심의



안산시의회가 제298회 임시회에서 의원 8명이 발의한 조례안 10건을 심의한다. 사진 왼쪽부터 안건을 발의한 김재국 현옥순 박은경 황은화 한갑수 이진분 김진숙 유재수 의원의 모습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안건 발의에 의원 8명 참여 회기 중 상임위원회 심사 통해 본회의 부의 여부 결정

안산시의회가 오는 8월 25일 개최하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의원 8명이 발의한 조례안 10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김재국 현옥순 박은경 황은화 한갑수 이진분 김진숙 유재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들을 심사하고, 심사를 통과한 안건들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들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김재국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현옥순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박은경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의원 발의나 위원회 제안, 주민조례 청구 의안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해 재정 부담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의 경우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입학준비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개정안은 건설노동자 출퇴근 정보를 투명하게 기록해 노무비 관련 부조리를 예방하고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을 수립하는 것이 그 취지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박은경 의원의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황은화 의원의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갑

수 의원의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은경 의원의 '안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진분 의원의 '안산시 회귀질 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 목록에 올랐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은 지역내에서 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운동장을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운동장으로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 도모에 따르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개정안과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조례안, 회귀질환관리 지원 조례안은 차례대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조

견 출입보장에 관한 사항 규정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회귀질환의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골자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김진숙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재수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두 조례안은 각각 용적률 특례가 적용되는 역세권 범위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 가격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제정 이후 정비된 적이 없는 조례를 현행에 맞게 개정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한편, 이번 29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는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되며, 안건의 최종 심사는 9월 11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와 미디어기구 개편 방안” 토론회

###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특정 인물 축출 아닌 미디어 정책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안산시 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사진)

은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와 미디어기구 개편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통신·OTT 등으로 다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최영목 성공회대 교수의 발제와 양한열 오픈미디어연구소장, 이상원 경희대 교수,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 이준형 언론노조 전문위원, 이진순 민연련 이사, 김현 국회의원이 참여한 토론회로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최영목 교수는 “규제와 진흥 기능을 함께 가진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복원하는 것이 1차 과제”라며 “합의제는 민주적·공적 성격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제 방통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부·사업자·시민사회가 투명한 네트워크로 결합해 상호작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 의원은 지난 7월 28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2013년 분리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를 다시 통합해 새로운 시청각

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 방통위 업무에 유료방송·뉴미디어·디지털방송·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정책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책 혼선을 줄이고, 공영방송부터 뉴미디어까지 아우르는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현직 방통위원장 축출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김 의원은 “새 위원회를 만드는 이유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 인물을 겨냥해서 민주언론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와 미디어기구 개편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통신·OTT 등으로 다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최영목 성공회대 교수의 발제와 양한열 오픈미디어연구소장, 이상원 경희대 교수,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 이준형 언론노조 전문위원, 이진순 민연련 이사, 김현 국회의원이 참여한 토론회로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최영목 교수는 “규제와 진흥 기능을 함께 가진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복원하는 것이 1차 과제”라며 “합의제는 민주적·공적 성격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제 방통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부·사업자·시민사회가 투명한 네트워크로 결합해 상호작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 의원은 지난 7월 28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2013년 분리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를 다시 통합해 새로운 시청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고, 헌법·법률 위배 시 탄핵소추가 가능 대상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현 의원은 “방심위의 독립성을 지키되,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민수 교수는 “방송과 통신은 개인의 의견 형성과 관련된 기본권으로 가장 강력한 보호가 요청된다”며, “방송·통신 관련 국가 사무의 관할을 반복적으로 논의 대상으로 올리는 자체가 기본권 보호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가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독립제보단 합의제 기구가 정책 처리과정이 공개되어 더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현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조속히 통과시킨 뒤, 구체적 제도 설계는 (가칭)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폭넓게 논의해 더 많은 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안산시의회, ‘제297회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 개최 18일 회의서 298회 임시회 의사일정·부의안건 확정

## 오는 25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8일간 56건 심사

안산시의회가 18일 ‘제297회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진호)’를 열어 제298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부의안건을 확정했다.

이날 의회 제4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회의에서는 임시회 의사일정과 부의안건이 포함된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처리됐다.

회의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11일까지 18일간 개최되며, 의회는 이 기간 동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등 총 56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임시회 중 본회의는 8월 25일과 9월 10·11일 등 세 차례 열리고, 상임위원회는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다섯 차례 개최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8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뒤, 9월 3일부터 9일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를 주재한 최진호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 다수의 안건을 심의



제298회 임시회가 오는 25일부터 18일간 개최된다. 사진은 18일 의회 제4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97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모습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하게 된다”며 “특히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책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 예산 등이 안건에 반영되어 있는만큼 회기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 ‘방송개혁’ 주도 김현 국회의원 ‘방문진법’ 개정 성과

### 김현 의원, “공영방송 주인인 국민품으로”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안산시 을, 사진)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배 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했다. 또 방문진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5인), 시청자위원회(2인), 방송임직원(2인) 미디어학회(2인), 법조계(2인) 등으로 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MBC 사장 선출 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100인 이상을 구성해 3배수 이하로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제정해 주주총회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국회 의결에 따라 방문진은 개정안 시행 3개월 이내에 이사진을 교체해야 한다.

김태창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소소한 연구모임’, 골목상권 분석·활성화 방안 연구 중간 보고회 개최

### 용역 중간 성과 및 진행 현황 분석 결과 등 함께 공유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소소한 연구모임’(대표의원 현옥순)이 지난 18일 안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상권 분석 및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단체 소속 현옥순 대표의원을 비롯해 설호영, 이진분, 최찬규 의원과 안산시 소상공인지원과장, 안산상권활

성화재단 대표이사, 용역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안정화 방안 연구의 중간성과와 연구 진행 현황 및 주요 분석 결과가 공유됐다.

구체적으로는 안산시 관내 59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한 ▲상권별 규모 및 업종 분포 ▲매출 현황 ▲시간대별·요일별 소비 패턴 ▲이용자 특성 등 세부 분석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맞춤형 활성화 방안이 공개됐다.

김태창 기자



# 대부도저널 운영위원회 본사 3층 회의실에서 열려

## 박해철 의원과 주민토론회 준비방안 두고 집중 논의

대부도저널 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성용, 본지 발행인) 8월 월례회가 20일 오후 4시, 본사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월례회에서 윤성용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분기별로 회의를 갖다 보니 오랜만에 뵙는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앞으로는 자주 뵈도록 하자”며 “지역에서 선봉에 서는 모범적인 신문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 함께 하자”고 말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대부도저널 향후 주요 일정 논의 △저널 트레킹 투

어, 저널 피싱 투어, 저널 골프 투어 소개 △운영위원회 지원방안 논의 △박해철 의원과 주민 대토론회 준비 일정 논의 △대부도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입장 등이 논의됐다.

기타 안건으로는 대부도에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시의 예산문제로 재정사업이 어렵다면 민간투자사업을 과감하게 유치하거나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다음 월례회는 11월 19일(세째 주 수요일)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저널 운영위원회 8월 월례회가 20일 오후 4시, 본사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대부도 단신

## 휴가철 내가 만든 쓰레기를 되가져감시다

대부해양본부가 휴가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대부도 곳곳에 현수막을 내 걸었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 전화 1666-1234로 하면 된다.

## 대부북동 상동교차로 개선공사 안내

대부도서관 앞 도로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부분의 마지막 마무리로 상동교차로에서 탄도방향 1개 차로 넓히는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공사기간은 오는 10월 27일까지다. 궁금한 사항은 안산시 건설도로화천과나 시공사인 대신건설(주)로 문의(010-3410-1153)하면 된다.

상동교차로 공사가 마무리 되면 대남로에서 상동교차로를 지나 선감동이나 탄도방향으로 이동하려는 관광객들은 교통정체로부터 일정부분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으며, 대상 가구는 사전 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최희영 민간위원장은 “작은 손잡이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큰 안전장치가 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봉순 대부동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지사협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부동 지사협은 2026년도에도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생활 밀착형 복지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 바다수영객을 해난사고자로 오인신고 ‘해프닝’



바다수영의 성지로 불리고 있는 구봉도 앞바다에서 바다수영 동호인들 수십명씩 팀을 이뤄 수영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

김태창 기자

## 최근들어 바다수영 성지 구봉도에서 자주 발생

구봉도 해안 일대는 많은 시민과 동호인들이 바다수영을 즐기는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바다수영 동호인들이 늘어나면서 잦은 해프닝이 일고 있다.

바다에서 정상적으로 해염치는 바다수영인들을 해양사고로 오인해 신고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바다에서 수영하고 있거나 등대하단부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바다수영 동호인들을 해난사고자로 오인하고 해경에 신고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평택해양경찰서 안산과 출소는 ‘바다수영객 신고 방법 안내문’을 배포하고 “무작정 신고할게 아니라 스마트폰 등으로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고해 주면 정확한 상황 판단 및 사실 확인에 큰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봉도는 전국에 있는 바다수

영 동호인들로부터 ‘바다수영의 성지’라고 불릴만큼 바다수영하기 좋은 곳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최근 들어 주말이면 수백명이 구봉도를 찾고 있고, 주중의 경우에도 수십명이 구봉도에서 바다수영을 즐기고 있다.

대부해솔길 1코스가 있는 구봉도 제1주차장에서 출발해 낙조전망대를 돌아 종현어촌휴양마을을 끼고 돌아오는 4km구간이 가장 유명한 바다수영 성지로 통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대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네 구석구석 불편해소’사업 마무리



단원구 대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네 구석구석 불편해소’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설치 및 문고리 교체를 진행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 거동 불편 어르신 대상 안전손잡이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완료

단원구 대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네 구석구석 불편해소’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설치 및 문고리 교체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사협 햇살분과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7월에 장애인가구 대상으로 진행한 싱크대 교체 지원에 이어 이번 주거환경 개선 작업을 통해 2025년도 ‘동네 구석구석 불편해소’ 사업을 최종 마무리했다.

대부동은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예방과 일상생활의 편의성 향

## 대부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모집

### 모집분야 8개 프로그램 강사

대부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강사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8개 프로그램으로 강사 역시 8명이다.

주요 분야는 △풍물 △에어로빅 △난타 △라인댄스 △파워댄스 △노래교실 △색소폰 △요가 등이다.

계약기간은 올 10월1일부터 내년 9월30일까지 12개월이며, 신청서 접수는 8월21일부터 9월18시까지다.

접수장소는 대부동 행정복지센터이

며 연락처는 전화 031-481-6949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 발표는 9월12일 개별 통보한다.

한편 수강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인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폐강될 수 있으며 폐강 시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저널 광고문의  
☎ 032-880-9994

## 풍도에 해수전용 담수화시설 도입 추진

안산시는 최근 대남초등학교 풍도분교의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풍도에 해수전용 담수화시설 도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부지 매입은 그동안 지하수의 고갈로 식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풍도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는 첫걸음이다. 풍도의 경우, 육지와 거리가 멀고 상수원 확보가 어려운 도서 지역으로 안정적인 식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이러한 풍도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해수 전용 담수화시설 도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시는 하반기 중 시설 설계에 착수,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해수전용 담수화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면 풍도 지역 주민에게 하루 약 80톤에 달하는 깨끗한 물이 공급될 전망이다.

시는 최신 담수화 설비 외에도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주민 편의를 위한 복지·문화 공간도 함께 조성해 주민의 생활 편의와 공동체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 저널 트레킹 투어 회원 모집 철원 소이산 트레킹

대부도저널에서 매월 한 차례씩 전국 유명 트레킹 코스를 걷는 ‘저널 트레킹 투어’ 회원을 모집한다.

오는 9월 10일 수요일 진행되는 트레킹 코스는 강원도 철원 소이산 둘레길로, 철원역에서 레일바이크를 타고 소이산 정상에 올라 황금들녘 철원평야를 한 눈으로 바라보는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다.

소이산은 362m의 산이다. 소이산 정상 전망대 너머로는 치열했던 전장 백마고지, 화살머리고지, 긴장이 흐르는 비무장지대(DMZ) 등이 있다.

황금벌판을 이룬 철원평야에는

가을경이 한창이다. 소이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넓은 들판은 민간인 통제지역(민통선)으로 사전에 출입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다.

모집은 9월 3일까지며 참가비는 1인당 5만원으로 모집인원은 40명이다. 집결장소는 대부도저널 주차장(단원구 상동로 97)이다.

참가비 입금은 농협 352-2309-3205-43(예금주 이선화)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32-880-9994, 010-2535-2728)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당구 열기 후끈! 2025 안산시체육회장배 3쿠션 당구대회 개최



‘2025 안산시체육회장배 3쿠션 당구대회’가 지난 8월 9일 토요일부터 10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와동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와동체육관에서 열려 대성황

‘2025 안산시체육회장배 3쿠션 당구대회’가 지난 8월 9일 토요일부터 10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와동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안산시체육회(회장 이광중)가 주최하고 안산시당구연맹(회장 최성웅)

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총 500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해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경기는 2인 1조 스카치(scotch)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팀은 호흡을 맞춰 번갈아 타구하며 전략적인 플레이를 펼쳐 관중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조별 예선을 거쳐 본선 토

너먼트로 이어지면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들이 이어졌다.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한 빌클라스 동호회(김광섭, 김우현)팀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대원동호회(임종석, 주정웅)팀이 준우승을, JMB동호회(김종혁, 홍진규)팀과 천체동호회(권숙준, 정소익)팀이 공동 3위를 기록했

다. 이번 대회는 당구 동호인들이 함께 화합하고 실력을 겨루는 축제의 장으로, 동호회 간 유대 강화는 물론 안산시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도 큰 의미를 남겼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상록청소년수련관, KYK FOUNDATION과 함께 ‘스포츠가치캠프’ 운영

## 청소년에게 스포츠의 가치를 김연경의 정신을 전하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상록청소년수련관은 지난 8월 6일, 상록청소년수련관 1층 힘마루에서 개최된 ‘2025 스포츠가치캠프’가 청소년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스포츠 문화 경험과 스포츠 가치 내면화를 목표로, 안산시 내 중·고등학교 배구동아리 소속 청소년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운영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의 올림픽가치교육(K-OVEP) 방문형 수업 연계 △스포츠컨디셔닝 서포터 주관한 부상 예방 및 컨디셔닝 교육 △안산시배구협회에서 연계한 배구 포지션별 기술 세미나 및 친선 경기 등 실습 중심의 전문 교육이 다채롭게 진행되어, 참가 청소년들의 신체적 성장과 인성 함양을 함께 도모했다. 특히 이번 캠프는 KYK Foun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상록청소년수련관이 지난 8월 6일, 상록청소년수련관 1층 힘마루에서 ‘2025 스포츠가치캠프’를 개최했다. 김태창 기자

ation(이사장 김연경)이 메인 협력 및 후원사로 함께해 참가자 모집, 후원 물품 지원 등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밀도 높은 협력을 제공하여 김연경 이사장의 청소년 배구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이 현장에서 그대로 전달됐다. 캠프 개회식에는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안산시청소년재단 전희일 대표이사, 안산시배구협회 조호준 회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청소년 스포츠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했으며, KYK Foundation 김연경 이사장의 축하 영상이 상영되며 참가 청소년들의 뜨거운 환호를 이끌어냈다. 상록청소년수련관 김형기 관장은 “청소년이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스포츠 참여 태도는 물론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스포츠 기반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캠프는 참가 청소년들의 높은 만족도와 긍정적인 피드백 속에서 마무리되었으며, 향후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2025년 김홍도미술관 ‘모두의 그림, 김홍도 촉감畵(화)’개최

## 2025년 경기도, 안산시 주최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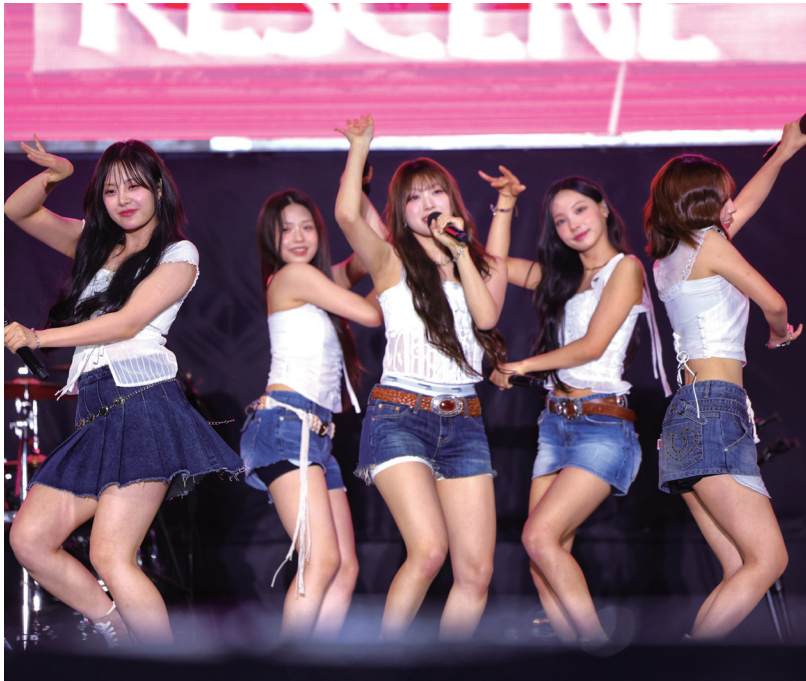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태훈)은 2025년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모두의 그림, 김홍도 촉감畵(화)〉를 오는 8월 28일 목요일부터 김홍도미술관 상설미술공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안산시가 주최하는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의 일

환으로 시각장애인을 고려하면서도 장애인에게 여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이다. 앞서, 김홍도미술관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과 협업하여 상호 보완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촉각 교구재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번 전시와 교육에 활용하여 단원 김홍도의 예술적 가치를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개발된 교구재는 △촉각 교재 △촉각 그림 △음성 해설(QR코드)로 풍속화, 산수화, 기록화, 신선도 등 모든 그림에 뛰어났던 김홍도의 예술세계를 폭넓게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촉각 교재에는 안산에서 표암 강세황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유년시절부터 화가로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기까

지 김홍도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장르별 대표작품 14점이 입체 그림으로 수록되어 있다. 또한, 김홍도미술관 소장품 10점과 풍속화 2점을 입체적으로 해석하여 만든 촉각 그림을 함께 전시로 선보여 시각적 접근을 넘어 촉각을 통해 감상하는 색다른 형태의 전시를 경험하게 한다. 안산문화재단은 “이번 전시와 교육을 통해 차별 없이 누구나 미술관을

## 2025여름미오페스티벌 안산의 여름밤을 수놓아



2025여름미오페스티벌 축제 현장(리센느 무대)

김태창 기자

## 10CM, 키노, 리센느 등 K-POP 가수들 대거 출연 5만 명의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안산의 여름축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태훈)은 8월15일부터 16일까지 안산문화광장에서 개최된 〈2025여름미오페스티벌〉이 5만 명의 안산시민들과 함께 성공리에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여름미오페스티벌은 안산시 대표 여름축제로써 22년째 시민들이 더운 여름 날 예술과 함께 피서를 즐길 수 있는 야외 공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있다. 올해도 폭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과 방문객들의 열광적인 호응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는 다양한 어린이 및 가족을 위한 버스킹이 광장 곳곳에서 펼쳐졌고,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음악콘서트가 개최되어 지루할 틈 없이 축제가 진행되었다. 특히 메인 무대에서는 물대포, 폭죽, 불기둥 등 다양한 특수효과가 가미되어 시민들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하였다. 15일 메인무대에서는 지역 청년들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졌다. 먼저 서울예술대학교 재학생인 DJ로스포어가 50분 동안 여름미오의 열기를 끌어올리는 EDM(전자음악) 사운드를 선보였고, 이후 신안산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와 학생이 함께 선보인 밴드셋의 무대를 준비하였다. 15일의 분위기를 책임진 건 서울예술대학교 재학생들로 이루어진

힙합 동아리 웨이브(WAVE)와 무용과 학생들이 모인 엑조디아의 무대였다. 힙합음악 댄스 등으로 청소년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마지막으로 지역예술인 디퍼(Deeper)가 브라스밴드와 DJ로 구성된 신나는 사운드로 대미를 장식하였다. 16일은 K-POP을 대표하는 가수들이 출연하여 수 많은 관객들이 광장으로 집결하였다. DJ카시하가 포문을 열고, 신인 여자 아이돌인 러브원과 리센느가 축제의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하였다. 이후 보이그룹 펜타곤의 멤버였던 키노(KINO)가 열정적인 춤과 음악으로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마지막 무대는 한국을 대표하는 뮤지션인 10CM가 장식했다. 10CM는 안산시민들의 열정적이고 뜨거운 반응에 연신 놀라며 앵콜곡을 계속해서 추가하며 끝까지 관객들과 함께하였다. 관객들은 실재없이 땀겨져 나오는 물대포에 몸을 흠뻑 적셔가며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열정적인 축제와 함께하였다. 양일간 실시한 관객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무더운 여름을 날릴 수 있는 이벤트에서 좋았다.”, “내년에도 다양한 아티스트를 초청해달라.”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름미오페스티벌은 안산문화재단에서 기획 및 주최하는 축제로 매년 여름에 안산시 곳곳에서 진행된다. 여름미오페스티벌에 대한 정보는 안산문화재단 홈페이지(ansanar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앞으로 “문화적소외계층의 접근성과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모두의 그림, 김홍도 촉감畵(화)〉전시는 12월 21일까지 상설미술공장에서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전문강사와 함께하는 연계 교육 프로그램은 문화적소외

층(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포함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총 9회차를 운영한다. 교육 프로그램 신청은 김홍도미술관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폼(QR코드)을 통해서 사전 신청 후 참여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이번 전시 및 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김홍도미술관 031-481-0506으로 하면 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 선부2동에 대형 TV 기탁



단원구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9일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한호전)에서 안산중흥S클래스경로당에 대형 TV를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호텔경영·외식·제과제빵 전문 교육기관인 대한민국 호텔학교 한호전은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복지시설 후원, 재능기부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안산중흥S클래스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과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지난 7월 초 개소에 본격적

인 운영을 시작했으며, 기탁된 TV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원영 한호전 학장은 “어르신들의 일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했으며, 지역과 함께 성장·소통하는 교육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윤희 선부2동장은 “어르신들이 더 즐겁고 활기차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민관이 협력해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성포동 주민자치회, 노적봉 어린이 숲체험 캠프 성료



상록구 성포동 주민자치회는 여름 방학 동안 유치부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족과 함께하는 노적봉 어린이 숲체험’ 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숲체험 캠프는 성포동 행정복지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어린이와 가족들이 모여 숲해설가의 강의를 듣고, 노적봉 개구리 습지에서 물속 생물을 탐사하는 1차시, 노적봉의 풀, 꽃, 나무를 관찰하는 2차시, 다양한 곤충 생태를 탐사하는 3차시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알찬 구성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민봉기 주민자치회장은 “어린이들에게 여름방학 동안 성포동의 자연 자원인 노적봉 숲체험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학습을 통해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어 보람 있다”고 말했다.

박순덕 성포동장은 “앞으로도 주민 자치회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가족이 행복하고 온마음이 행복한 성포동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한울타리봉사단, 신길동에 라면 후원



단원구 신길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일 한울타리봉사단으로부터 소외된 이웃을 위한 라면 100박스를 기탁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나눔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보탬이 되고자 한울타리봉사단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마련했다.

한울타리봉사단(단장 서진희)은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꾸준히 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매년 생필품 및 식품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 참여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 따뜻한

올타리 역할을 하고 있다.

서진희 단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봉사단의 이름처럼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마음으로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인 신길동장은 “지역사회를 밝히는 귀한 나눔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 한울타리봉사단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물품은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누리봄봉사단, 이동 상록수경로당 국수 나눔 행사



상록구 이동 행정복지센터는 20일 누리봄봉사단이 이동 상록수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국수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포동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김수현) 협찬, ㈜스마트코리아피씨비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직접 조리한 멸치국수와 장수떡집(이동소재)에서 후원한 떡을 함께 제공해 어르신들께 풍성한 점심을 대접했다. 또한, 행사에서 어르신들에게 네일아트를 제공해 즐거움을 안겨드렸다.

이쌍이 단장은 “어르신들께서 즐겁

고 건강한 시간을 보내시는데 보탬이 되고자 국수나눔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고 즐겨워하시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끼며, 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옥란 이동장은 “이웃 어르신들을 폭넓게 살피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시는 누리봄봉사단 관계자분들의 열정에 감사드린다”며 “이동 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항상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중앙동 자율방재단, 무더위 극복 위한 생수 나눔



단원구 중앙동 자율방재단은 지난 11일과 18일 양일간 중앙동 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앞 거리 등에서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생수 무료 나눔 행사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중앙동 변화가 거리에서 폭염 속 거리를 걷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했으며, 생수를 나누어 주면서 폭염 시 행동 요령 안내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박현숙 자율방재단 대표는 “이번 생수 나눔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더위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중앙동 방재단은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위한 예방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미라 중앙동장은 “뜨거운 날씨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 자율방재단 단장 및 단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방재단 등 단체들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해양동 지사협,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상록구 해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8일 상록수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다.

이날 교육은 지사협 위원들이 무더위로 건강 위협이 높아지는 여름철, 가정방문 등 활동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심폐소생술(CPR)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인공호흡과 가슴 압박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는 응급처치로, 골든타임인 4분 이내에 시행하면 생존율이 3배 이상 높힐 수 있어 가정

이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위급상황에 꼭 필요한 대처 방법이다.

정선구 지사협 위원장은 “고령의 어르신 및 중증질환자가 있는 세대에 가정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언제든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훈기 해양동장은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키워 위원들이 다양한 현장에서 안전하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행정사사무소**



**대부도측량설계사무소**

**대표 박정탁**

**안산시청 공무원 출신 행정사**

◇ 2004년 안산시청 입사  
◇ 2021년 안산시청 퇴직  
◇ 대부도 3차례 근무 : 대부도 인허가 담당 (12~13년, 18년~21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Tel.032-880-8533 Fax.032-880-8532  
Hp. 010-2378-7128 wjdxkr78@hanmail.net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가설건축물  
(체류형쉼터,농막)

개발부담금  
불법사항해소  
(건축물,임야,농지)  
진정서, 탄원서  
농지취득증명  
각종민원해소



# 안산시, 심폐소생술 공개 시연 개최... 생명존중 문화 확산 앞장

## 이민근 시장 직접 시연 나서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안산시는 20일 안산시청 내부 카페에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공개 시연'을 진행했다고 21

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부터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심폐소생술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초기대응의 중요성이 중요한 만큼, 공직자들이 실제 상

황을 마주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연은 을지훈련 기간에 맞춰 평소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초기 대응자로서의 공직자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자리에는 심폐소생술 교육 우수 수료자들이 직접 시연에 나섰다. 수료자들은 실제 응급 상황을 가정해

▲119 신고 ▲가슴압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등 구조 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단계별로 교육 담당자가 간단한 피드백을 제공해 공직자들이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왔다.

아울러, 이민근 시장도 이날 심폐소

생술 시연에 직접 참여하며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에 의미를 더했다.

시연을 관람한 공직자들은 "심폐소생술은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갑작스레 움직여 대응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다"며 "심폐소생술 교육에서 배운 내용들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성용 기자

### 토지매매

- (1)대부북동삼거리 인근 성장관리계획구역 주택단지
- (2)건축허가 300평(도로56평 포함). 평당 90만원
- (3)미준공주택 11년. 대250평/건40평. 3억7000만원

김선중 공인중개사 M: 010.3199.4992

### 광고문의

032.880.9994

 **대부도저널**

### 광고문의

032.880.9994

 **대부도저널**

## 바지락마을손칼국수2호점

백영태 M. 010.4403.449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해안로42 (대부북동)

## 최육진 세무회계사무소

최육진 T: 031.8042.6670

안산시 상록구 28,201호(본오동,보노피아빌딩)

## 선재낙시공원

조부형 M. 010.8813.0515

## 리라조경

박용복 M. 010.3703.9300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재로 34번길 23, 103호

## 대부도 주민자치회

위원 황진 M. 010-7632-1150

## 한주토목측량설계공사

김장식 M. 010.5345.985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40-1 (대부북동)

## 용담바다낙시터

오준태 M. 010.5285.0667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용담바다낙시터



## 행정사사무소

박정탁 M: 010.2378.712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 등대바다낙시터

이한종 M. 010.3738.661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87-4

## 동주염전 소금

토판 소금 / 일반 천일염 / 송하소금 판매

김관중 M: 010.9080.1195

안산시 단원구 중부흥 127-1 / 동주염전 2구

## 말부흥 어촌계

계장 신준선 M. 010.7340.5511

## K3 바다낙시터

최병희 M. 010.5230.853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643-35

## (주) 황금토목측량설계공사

유재용 M. 010.3433.46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로1288 (대부북동)

## GS25 대부포도점

빈호준 M. 010.9220.203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667(대부남동), 202호

## 서해부동산

박현배 M. 010.8810.38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어지런이길 61-8(대부남동)



## 미래기획

25년 경력 간판. Led채널. 현수막. 씀팅. 현수막

이 병 철 M: 010.9366.9699

## 규현공방

수족관 제작에서 관리까지 맡겨주세요

조규현 M: 010.4071.2797



## (주)대동토지개발

양금순 M: 010.8722.5095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633, 11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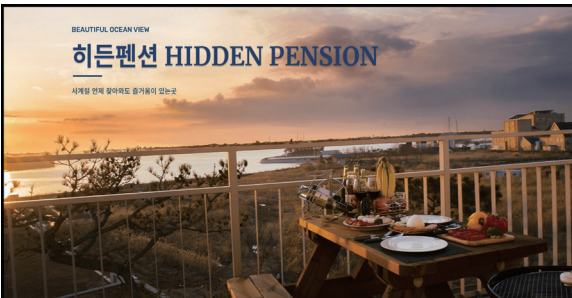


대부도 방아머리의 명소

## 카캉스

조재숙 M: 010.2492.1800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01-1



## 히든 펜션

최은숙

안산시 단원구 대호1길 19 M : 010.9913.8956



전 객실 바다전망 테마가 있는 유럽풍 펜션

## 아테네펜션

차준경 M: 010.5353.2755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622-5



# 웅진군 “제9회 주섬주섬 음악회”성황리에 개최

## 덕적면 서포리해수욕장에서

웅진군이 지난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덕적면 서포리해수욕장에서 주최한 ‘제9회 주섬주섬 음악회’가 군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주섬주섬 음악회는 웅진군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며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고, 버스킹, 해변노래방, 대하 맨손잡이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이번 음악회는 지역 문화동아리 한 마당과 주섬주섬 음악회 경인방송 라디오 특집공개방송으로 초청가수들의 열정적인 공연이 이어져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고, 축제의 마지막 순서인 불꽃 퍼포먼스로 서포리 해수욕장 바다 위를 화려하게 수놓으며 축



웅진군이 지난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덕적면 서포리해수욕장에서 주최한 ‘제9회 주섬주섬 음악회’가 군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제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문경복 군수는 “197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서포리 해수욕장에서 벌써 주섬주섬 음악회가 9회를 맞이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더욱더 웅진군만의 특색 있고 아름다운 섬 축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섬주섬 음악회는 2016년 첫

회를 시작으로 매년 여름에 개최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문화축제로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김태창 기자

## 웅진군, 2025년 7개면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개최

### 자월면 시작으로 30일까지

웅진군은 21일 자월면을 시작으로 30일까지 관내 7개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총회는 해당 면 주민이 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 마을 현안을 논의하고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자체계획을 최종 결정하는 ‘주민공론의 장’으로 실질적인 주민 참여 자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행사로, 주민자치회 활동과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발표, 내년도 주민자치회 추진사업 투표를 진행한다.

문경복 군수는 “주민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모여 진정한 자치를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된다”며, “주민자치회가 군민과 함께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웅진군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 일정은 ▲ 8월 21일(목) 자월면, 덕적면 ▲ 8월 26일(화) 연평면 ▲ 8월 27일(수) 북도면 ▲ 8월 28일(목) 영흥면 ▲ 8월 29일(금) 대청면 ▲ 8월 30일(토) 백령면 순으로 열릴 예정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웅진군은 21일 자월면을 시작으로 30일까지 관내 7개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웅진군 드림스타트, 아동 금융교육 실시

웅진군은 아동의 올바른 경제 습관 형성을 위해 20일 영흥면 소재 웅진군 가족센터에서 드림스타트 및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 아동 16명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돈의 가치 알기’, ‘용돈 관리법’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초등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

해 맞춤형 강의와 체험 활동이 병행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아동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랐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필요한 것과 갖고 싶은 것을 구별해서 쓰는 법을 알게 됐다”며, “저금도 해보고 싶고, 나중에 기부도 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 소이작도 단수에 따른 주민 생수 긴급 지원

### 인천남동부수도사업소 ·해군기지 협력으로 주민 불편 최소화

웅진군 자월면(면장 강혁철)은 20일, 소이작도에서 발생한 단수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남동부수도사업소와 협력하여 생수 14톤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8일 소이작도 정수장치 고장으로 인한 단수 발생에 따른 긴급 대응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천남동부수도사업소에 즉각적인 생수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에 수도사업소는 신속히 대응하여 생수 약 14톤을 소이작도로 수송, 단수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하였다.

특히, 이날 생수 전달 과정에는 생

수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이작도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소이작도 해군기지 군 장병들이 생수 운반 작업에 동참하여 지역사회와의 유대와 협력을 보여주었다.

강혁철 면장은 “단수를 해결하기 위해 생수 지원을 해주신 인천남동부수도사업소와 힘을 보태주신 해군기지 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불편함을 겪었을 주민 여러분께 정수장치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주민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대부도저널 광고문의 ☎ 032-880-9994

## 웅진군, 을지훈련 3일차 ‘서해5도 주민 대피 훈련’

### 19일 3일차 훈련 돌입

웅진군은 19일 을지훈련 2일차를 마무리하고, 3일차에 돌입하며, 북한 국지도발 시 안전한 주민 대피를 위한 ‘서해5도 주민대피 및 이동 현장훈련’을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국지도발을 가상하여 실시된 이번 주민 대피 훈련은 적국 민방위 훈련의 일환으로 총 12개 기관과 단체가 참가하여 실시되었으며, 웅진군의 서해5도에서는 공습 경보발령과 대피소 주민대피에 이어 주민 이동 실시, 부상자 및 응급 환자 발생 대비 응급처치 교육과 화생방 상황을 가정한 방독면 착용 교육 등을 진행하였다.

그 외에도, 웅진군 2일차 훈련에서는 전쟁 발발에 따른 중무계획 및

전시 경제정책 전면시행, 비상물자 확보 대책 강구 및 파괴된 기반시설 복구, 전재민 임시대피소 이동 등을 훈련과 상황보고를 통해 점검하였고, 전시에산 부족에 따른 전시에산 확보 방안, 생필품 부족 해결 대책 등이 개선사항으로 보고되었다.

문경복 군수는 “평소 국토수호를 책임져온 서해5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하며, 웅진군은 전역이 접경지역인 만큼, 어떠한 곤경과 역경 속에서도 신속한 위기극복을 통한 군민들의 안전과 안정이 최우선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응태세와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대부도저널 트레킹 투어 회원모집

‘대부도저널’에서 매월 1회씩 전국 유명 트레킹 장소를 투어하기 위한 ‘저널 트레킹 투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걷는 것을 좋아하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첫번째 저널 트레킹

- 일시 : 2025년 9월 10일(수) 오전 8시 출발 (오전 7시 50분까지 집결)
- 장소 : 트레킹 장소 (강원도 철원 소이산 둘레길 등)
- 모집 인원 : 선착순 40명
- 모집 마감일 : 9월 3일까지 (여행자 보험위해 주민번호 필요)
- 연락처 : 신문사 032-880-9994 / 이선화 과장 010-2535-2728
- 참가비 : 1인당 5만원 (식비, 관광버스 왕복, 간식, 물, 보험, 레일바이크 탑승료 포함)  
(계좌 : 농협 352-2309-3205-43. 예금주 : 이선화 / 입금 후 연락바람)
- 집결장소 및 시간 : 대부도저널 주차장 (단원구 상동로 97)



# 경기도, 안산시 이동노동자쉼터 ‘힐링 4호점’ 개소… 내년까지 지속 확충

’23년 상록구 이동,  
’24년 상록구 성포동,  
’25년 단원구 선부동

경기도는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이동노동자를 위한 안산시 소재 네 번째 이동노동자쉼터, ‘안산 힐링 4호점’의 문을 열고 2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안산 힐링 4호점’은 경기도가 설치한 17번째 간이형 쉼터로, 배달·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동노동자는 업무 특성상 이동이 잦고 휴게시간이 불규칙해 전용 휴게공간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이동노동자 복지 증진, 노동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의 하나로 쉼터 설치 및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힐링 4호점’은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공영주차장 인근으로 서부권 교통의 요충지이자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권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배달·대리운전·택배 등 이동노동자들이 업무 동선상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인근에 대중교통 노선과 주요

간선도로가 있어 도심·주거지·상업지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주말과 피크타임에도 접근이 편리해 이용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이형 쉼터는 약 8평(27㎡) 규모의 컨테이너 부스로 설치됐으며, 냉·난방기, 무선인터넷, 냉온수기, TV, 소파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연중 24시간 무인출입 인증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야간과 휴일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이동노동자는 스마트폰 단말기를 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누리집(<https://labor.gg.go.kr/>)의 이동노동자 쉼터 출입QR 시스템 회원가입을 통해 로그인후 모바일출입증(QR)을 태그 후 출입할 수 있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안산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힐링 4호점 개소로 더 많은 이동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건강권 보호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활권 가까이에 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에는 지난 2022년 12월 27일 거점 이동노동자쉼터(힐링 1호



경기도는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이동노동자를 위한 안산시 소재 네 번째 이동노동자쉼터, ‘안산 힐링 4호점’의 문을 열고 2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은 이동노동자쉼터 내부 모습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mailto:chang4900@naver.com)

점, 단원구 고잔동), 2023년 12월 27일 간이 이동노동자쉼터(힐링2호점, 상록구 이동), 2024년 9월 30일 간이 이동노동자쉼터(힐링3호점, 상록구 성포동)에 개소에 이어 네 번째 이동노동자쉼터(힐링 4호점, 단원구 선부동) 설치가 이뤄졌다.

경기도는 지난 2021년부터 쉼터 조

성계획에 따라 총 27개소, 전국 최대 이동노동자쉼터(거점 10, 간이 17)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32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쉼터 개소를 통해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노동 환경 개선, 복지 향상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mailto:chang4900@naver.com)

## 김진경 의장, 2025년 을지연습 근무자 격려 도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9일 경기도 전시종합상황실을 방문해 ‘2025년 을지연습’에 참여한 공직자를 격려했다.

김 의장은 정윤경(더민주·군포1) 부의장과 함께 이날 오후 상황실에서 을지연습 훈련 상황을 살펴본 뒤, 격려 용품을 전달했다.

을지연습은 전쟁이나 테러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위기 관리 종합 훈련으로, 올해는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나흘간 실시한다.

김진경 의장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오늘의 훈련은 새 정부 들어 실시된 첫 훈련으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안보와 안전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책무”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mailto:chang4900@naver.com)



김진경(가운데)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9일 경기도 전시종합상황실을 방문해 ‘2025년 을지연습’에 참여한 공직자를 격려했다.

김태창 기자

## 김동연 “하남교산 신도시, 대한민국 대표 ‘AI시티’로 만들겠다”

김동연 지사, 21일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 경쟁력 강화’ 참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남 교산 신도시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AI는 이제 단순한 산업 혁신 도구를 넘어서 국가의 패러다임 전환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경기도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도 독자적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디지털 허브 조성, AI 테크노밸리 육성 등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모델을 구축해 왔다”며 “그중에서도 특히 도민의 삶과 직결된 것이 바로 ‘AI 시티’다. AI 기술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AI 산업, 연구, 일자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도시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에 추진 중인 AI혁신 클러스터를 소개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하남 교산 신도시를 대한민국 대표 ‘AI 시티’로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AI/DATA 혁신 클러스터는 데이터센터, 연구시설, AI 트레이닝센터까지 AI 시티 실현을 위한 인프라, 인력, 기술의 총집결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도시 전반이 넷제로

(Net-zero)로 설계될 예정인 만큼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미래도시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남교산 AI 혁신클러스터는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용지에 2조 3천억 원(토지비 제외)을 투입해 7만 1천㎡(연 면적 36만 4천㎡, 10개동) 규모의 AI/DATA 산업 클러스터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조성하는 내용이다.

인공지능대학원, AI트레이닝센터,

AI데이터센터, AI연구센터, 슈퍼컴퓨터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 시행자는 포스텍케이티 컨소시엄으로, 포스텍, 카네기멜론대(CMU), 싱가포르국립대(NSU) 등 세계 최고 수준의 AI 대학·연구기관과 KT클라우드, KT투자운용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경기도는 AI 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2023년 7월부터 국토부, 하남시, LH, GH와 협의해 왔으며, 수년간 교착돼 있었던 하남의 기업·교

육시설 유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 수차례 건의해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시·도지사도 기업유치 추천권을 갖게 되면서 지난달 전국 최초로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조례’도 만들었다.

관계기관 유치 최종 협의 후 투자제안서 접수와 심의를 거쳐 9~10월 중 입주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mailto:chang4900@naver.com)

기고문

## “도시의 공기”는 누구에게 자유로운가 대부도, 31년의 기다림



황 진

대부도미래발전위원회 회장

독일 속담에 “도시의 공기가 사람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말이 있다. 이는 중세 유럽의 도시들이 봉건적 지배에서 벗어나 자치권을 누리던 시대를 상징한다. 오늘날에도 이 속담은 도시가 제공하는 자유로운 분위기, 창의성, 문화, 일자리, 교육, 기회의 상징으로 인용되며, 많은 이들이 도시에서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꿈꾼다.

1994년에 대부도가 안산시에 편입되었을 당시, 당시 주민들은 낙후된 농어촌에서 벗어나 도시가 상징하는 발전과 자유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삼십여 년이 지난 지금, 대부도의 현실은 기대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인근 화성시나 용진군과 비교해도 열악한 사회기반시설과 전국 최고 수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대부도는 ‘자유로운 도시의 공기’가 아닌 ‘속박의 공기’마저 감내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 보고있는 실정이다.

안산시는 그간 도로, 상하수도 등 필수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고, 각종 규제는 경기 침체와 함께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해 왔다. 축제는 방아머리 일대 상가

등 소수에만 혜택을 주었고, 상동으로 대표되는 대다수 일반 주거지역 주민들은 대신 교통난과 소외감을 겪고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최근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박해철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대부도 발전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며 규제 완화와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고, 이만근 시장 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시했다. 여야 정치인이 정파를 초월해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은 대부도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그런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의 주체가 야당 시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소문은 사실이라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주민들은 “정당을 초월해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주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큰 신뢰와 지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대부도는 더 이상 정치적 갈등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정파를 떠나 지역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소탐대실하지 않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견한 자세를 보여준다면, 대부도는 마침내 ‘자유로운 도시의 공기’를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주민의 뜻을 존중하는 결단을 내린다면, 그 결실은 주민의 신뢰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

## 경기도교육청, 우간다 공화국 교원 초청 디지털교육 연수 진행

경기도교육청이 아프리카 우간다 공화국 교원을 초청해 디지털 교육 연수를 운영한다. 경기 디지털교육의 앞선 경험을 아프리카 국가에 전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향후 양국 간 교사 교류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연수는 2024년 경기도교육청과 우간다 공화국 교육체육부가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진행되는 두 번째 초청 연수다. 기간은 20일부터

8박 9일 일정이며, 우간다 공화국 무기샤 아네티 교원연수개발국장을 단장으로 교원 총 26명이 참여했다.

우간다 교원 연수단은 오는 28일까지 ▲경기 글로벌 디지털 교육 선도 교사단’의 디지털교육 연수 ▲디지털 선도학교 수업 참관 ▲인공지능(AI) 관련 산업현장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경기 디지털교육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한다.

김태창 기자



# ‘살기 좋은 대부도, 찾고 싶은 대부도’를 만들어가겠다

## 대부해양본부 서병구 본부장

대부해양본부 서병구 본부장은 본청에서 녹지과장(5급 사무관)으로 재직하다 지난 7월1일자로 승진(4급 서기관)하면서 이곳으로 부임했다. 이제 대부해양본부 사령탑이 된지 이제 겨우 2개월째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각오는 대단하다. 대부도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이었던 각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허가 적체와 자연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기 미착공·미사용 승인 건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또한 그동안 밀려 있던 민원처리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주민과 소통하면서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서병구 본부장을 21일 오후 그의 사무실이 있는 대부해양본부 본부장실에서 만났다.

**대부해양본부장으로 승진 임용된 지 이제 1개월 보름이 지났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

“올 7월 1일자로 임용된 후 대부도 현안을 빠르게 파악하고, 조직과 현장 체계를 확립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인·허가 적체와 자연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기 미착공·미사용 승인 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밀려 있던 민원처리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대부도의 최대 현안이었던 뱃길 도선사업, 도로 안전환경 조성사업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대부도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부서가 바로 안산시에서 대부해양본부다. 그것도 대부개발과는 문지방이 닳을 정도다. 서 본부장은 주민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하겠다고 말해왔는데 어떻게 민원을 대하고 행정을 접목하고 있는지 듣고 싶고 또 앞으로의 방향도 알고 싶다.**

“행정의 기본은 주민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원을 접할 때마다 주민의 눈높이에서 절차를 설명하고, 불필요한 지연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각종 인·허가업무와 관련하여 장기 미처리 민원을 일제 정비하고, 보완 요구 기간을 단축했으며, 주민과 소통하는 설명·간담회를 정례화하고 담당 직원 교육을 통해 ‘돌아오는 민원 최소화’, ‘하루라도 더 빠른 민원처리’를 목표로 정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장 대응과 함께, 제도 정비를 병행하여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최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화호 뱃길 사업이 시작됐다. 2014년 처음 시작됐고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17년부터다. 처음 시작이 화려했으면 좋았겠지만 작은 배를 가지고 시작한 것은 못내 아쉬운 일이다. 하지만 미래비전은 크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시화호 뱃길 사업에 대한 안산시의 구상을 듣고 싶다.**

“먼저 많은 우려 속에서도 안산 대부도 뱃길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응원하여 주신 관계자와 시민께 감사드립니다. 안산 대부도 뱃길 사업은 시화방조제 건설로 30여 년간 끊겼던 뱃길을 복원하는 매우 뜻깊은 사업이다. 비록 시화호의 특성 및



대부해양본부 서병구 본부장은 대부도에 걸맞게 다행히도 기술직 공직자다. 그동안 행정직 공직자가 본부장 역할을 하다 보니 다소 대부도 현실에 부딪칠 때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대부도 개발현장에서 주민과 만날 때 설명이 시원시원하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일일 일머리를 통해 가르침을 타주는 역할을 잘 하고 있는 셈이다. 대부도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서 본부장의 역할과 그만큼 막중하다. 김태창 기자

제한여건에 의해 우선 소형선박을 투입하였으나 시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에는 32인승(승객 29명, 선원 3명) 도선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2단계로 내년 상반기에는 신규 도선을 대체 투입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내년 상반기 내 시화호를 항해하는 유람선을 투입하여 도선과 유선을 동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노선과 서비스 품질을 지속 개선하도록 하겠다, 뱃길 선착장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노선버스와 시티투어버스 경우, 푼버스 증차, 카셰어링, 공유자전거 등을 활성화 하여 대부도와의 관광 연계성을 확보하겠다. 앞으로 안산시는 안산 대부도 뱃길을 통해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특별한 즐거움을, 시민들에게는 옛 추억을 선물하고 새로운 해양문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생태복원사업, 대부길 등 대부도 특산물 지원 대책, 해양쓰레기 문제, 해양본부 일대 및 바다향기테마파크 힐링 꽃밭 계획 등에 대해 해양본부가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큰 그림은 무엇인가**

“대부해양본부는 대부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산업·환경·관광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 우선, 대부도의 대표 특산품인 대부길의 안정적 생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양식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 단속을 병행하여 연안 환경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연간 약 500톤에 달하는 해안이 쓰레기 정화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등 깨끗한 어촌 환경 조성과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자원 보호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 만들기 기반을 다지고, 올해 말 안산시 5개년 수산업 어촌·발전 계획 수

“해양치유지구 지정 통해 대부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돕겠다  
대부도 주민 여러분과 함께 섬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겠다”

립을 통해 증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하고자 한다. 바다향기테마파크는 철새와 해양생물의 생태복원을 기반으로 경관농업을 접목한 사계절 꽃밭을 조성하여, 시민에게는 휴식과 힐링의 공간을, 관광객에게는 매력적인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정원형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자연·주민·경제가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대부도 조성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대부도 방아머리항 국가 어항 조성, 대부해솔길 특색있는 관광지 도약 방안, 방아머리 해수욕장 관리 등의 어려움도 있다.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먼저 대부도 방아머리항 국가 어항 조성을 보자. 방아머리항 국가 어항 개발사업은 24년 8월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으로,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어항 지정권자인 해양수산부가 직접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다. 사업기간이 다소 긴 국가사업으로 신속한 국가어항 승격 및 개발을 위해 기초자료 수집 및 현장확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안산시 국가 어항 사업의 조속 추진을 건의하는 등, 수도권 대표 어항 건설을 실현하여 어촌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대부해솔길 특색 있는 관광지 도약 방안의 경우는 관광과 소관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방아

머리 해수욕장 관리이 경우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은 해수욕과 모래놀이를 즐길 수 있는 수도권 인기 명소로 매년 약 30만 명이 방문할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다만, 방아머리 해변은 정식 해수욕장이 아닌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방아머리해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래사장 정비, 안전관리 인원 운영,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대부도 방아머리해변 수도권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

**대부도에 해양치유지구유치를 추진중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해양본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유치가 확정된다면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대부해양본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맺어 해양치유지구 지정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해양수산부의 해양치유지구 지정 공모 계획에 맞춰 공모 신청할 예정이다. 유치가 확정된다면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동시설, 휴양시설, 판매시설 등 해양치유센터를 조성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대부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과 관광객에게 건강관리와 휴양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치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모 사업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오는 9월 19일부터 대부도에는 가장 큰 행사 3개가 동시에 진행된다. 포도축제, 걷기행사, 마라톤 등이 그것인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도축제, 걷기 축제, 마라톤 대회는 각각 농업정책과, 체육진흥과, 관광과가 주관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대부개발과는 성공적인 축제 및 행사 개최를 위해 유관부서와 정기적 회의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행사장 내 노후된 시설물 점검과 보완, 수목·녹지대 관리, 화장실·주차장 등 편의시설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및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끝으로 대부도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 달라.**

“대부해양본부는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인·허가, 어항·어촌 지원, 관광 인프라 관리 등 실질적 행정을 책임지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통해 ‘살기 좋은 대부도, 찾고 싶은 대부도’를 만들어가겠다. 특히 바다향기테마파크 활성화, 국가 어항 조성, 해양치유지구 유치, 뱃길·마리나 사업 등을 통해 대부도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대부도 주민 여러분과 함께 섬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겠다.” 김태창 기자



##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 [19회] 섬마을 선생님 노래비 제막식에 총각 선생님 노래 주인공 참석(중)



晴境(청경) 金善철(김선철)  
전 대남초등학교 교장  
현 안산문화관광해설사

이전호에서 계속, 2020년 9월 16일 노래비 제막식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려서 100명 이상 실내 모임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불기 전 감기 환자가 적은 여름으로 제막식을 앞당겨 2020년 8월 20일 오후 3시에 제막식을 거행하기로 하였다. 노래비 제작은 나무아틀리에 김용현 작가가 맡아 추진하였다.

노래비 옆면의 상단은 「섬마을 선생님 노래 55년, 총각 선생님 오신지 60년」을 새기고 그 아래에 건립비 모금 협조 단체명 및 개인명을 새겼다. 가장 먼저 대부동 유관단체명, 동호회와 법인명, 총동문회와 기수별, 대부 주민과 대남초등학교 졸업생, 노래 배경 조사, 보고서 작성, 포럼 추진, 작가 등 건립에 기여한 사람의 이름을 가나다순으로 새기도록 하였다.

제막식은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일반인의 대남초등학교 출입이 통제되어 운동장의 주차와 화장실만 개방하였다. 행사는 학생이 하교(下校)한



섬마을 선생님 노래 주인공 서강훈 총각 선생님과 이구영 소금뿔배 선장이 참석한 제막식

후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 노래비 제막식장과 화장실 출입구에는 코로나 19 예방 소독과 발열 측정을 대부동 주민센터장의 협조로 철저히 하였다. 행사 참석인원도 야외(野外)의 경우 100명 이하만 허용되었다. 다과와 음료수도 개별적으로 배분하여 위생 안전에 최선을 다했다.

제막식에는 1960년 대남초등학교 노래의 주인공 서강훈 총각 선생님, 이구영 소금 뿔배 선장, 김형식 노인회장, 대남초등학교 2회 이재원 전 총동문회장, 제10회 강순식 총동문회장, 양운영 주민자치위원장, 이갑성 센터장, 신정웅 추진위원장, 한국생활음악협회안산지회 이근희 회장, 전영민 통장협의회장, 박성심 새마을어머니회장, 홍영기 행남곡어촌계장 등 8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하였다.

제막식 식전 행사로 김은배 풍물단



섬마을선생님 노래비 제막식 양운영 대부동주민자치위원장의 격려사

의 지숙 울림 마당 겸 지신밧기로 흥겨운 놀이 한마당을 펼친 후 안윤중, 김장식 등 솔내음색소폰동호회의 '섬마을 선생님' 노래 연주를 시작으로 한국생활음악협회안산지회 연이(우현숙) 가수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대부도에코뮤지엄 이갑성 센터장의 내빈 소개가 있는 후, 섬마을선생님노래비건립추진위원회 신정웅 위원장의 대회사, 대남초등학교총동문회 강순식 회장의 환영사, 대부동주민자치위원회 양운영 위원장의 격려사에서 '섬마을 선생님 노래 55년, 총각 선생님 오신지 60년' 섬마을 선생님을 노래비 건립 축하와 아울러 섬마을 선생님을 노래 배경지 관련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기원하였다.

노래비 제막은 풍물패의 흥겨운 가락에 맞추어 참석자 모두가 12개의

제막(除幕) 리본을 당기며 오석(烏石) 섬마을 선생님 노래비를 보며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가 대부도이고, 또 하나의 명물이 탄생한 것에 기뻐하였다.

제막식 후 대부초등학교 대남분교 개교 당시 서강훈 총각 선생님과 대남초 2회 이재원 전 동창회장, 제10회 강순식 동창회장, 전영민 통장협의회장, 박성심 새마을어머니회장 등 졸업생이 서로 정담을 나누고 기념 촬영도 했다. 이어 이구영 소금 뿔배 선장, 김형식 노인회장, 신정웅 추진위원장, 한국생활음악협회안산지회 이근희 회장, 대남초등학교 김선철 전 교장 등 내외빈이 기념 촬영을 하며 섬마을 선생님 노래 관련 행사가 많이 열려 고장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랐다.

### 데스크 칼럼

## 항공료 조작 의혹부터 뇌물까지 흉흉한 안산 정치의 민낯



김태창  
편집국장

최근 안산시 정가가 깊은 충격에 휩싸였다. 경찰이 안산시의회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불거진 '항공료 조작' 의혹 때문이다. 사안은 단순하지 않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무 해외출장을 명분으로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예산으로 발권한 뒤 실제로는 이코노미석을 이용하고, 차액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그 차액은 관광이나 개인 용도로 쓰였다는 의혹이 짙다. 말 그대로 혈세를 '쌔짓돈'처럼 쓴 셈이다. 이 같은 의혹의 중심에는 특정 정당 소속 시의원들이 있다. 일부에서는 해외 출장이라는 명분 자체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으며, 실제로는 '관광성 출장'에 가까웠다는 내부 증언도 나오고 있다. 출장 이후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도 형식적이고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조작된 항공료와의 연관성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안산시의회의 자정 능력에 대한 회의는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신뢰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스스로 특권 의식에 젖어 기강을 해이하게 만든다면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없다. 이 와중에 또 다른 충격적인 비리 사건도 터졌다. 안산시가 추진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시 공무원이 업체

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해당 공무원은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업체 대표 역시 구속되었으며,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경기도의회 소속 A 의원까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며, 지역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ITS 사업은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추진된 정책이었지만, 그 과정이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장으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안긴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공사업이 정경유착의 수단이 되고, 공무원과 정치인이 이를 공모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 구속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수사는 이제 시의회를 넘어 안산시 전반, 더 나아가 경기도 일부 정치권까지 확대되고 있다. 안산지역 정가는 말 그대로 흉흉하다. 누가 더 연루되어 있는지, 어느 선까지 비리가 퍼져 있는지, 진실을 향한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지역 사회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투명성과 견제 시스템의 부재다.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은 형식에 그치고,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정치인은 선출되면 시민과의 거리감을 키우고, 공무원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비리를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시민의 세금은 마치 개인의 자산처럼 쓰이고, 공공성은 점점 사라져간다.

시민들은 묻고 있다. 누가 이들의 감시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왜 우리는 이런 정치인을 뽑아야 했는가. 지금이라도 안산 정치권은 시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공직자와 정치인의 최소한의 도리이며, 다시금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윤리적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

대부도저널

창간  
2025년 4월 7일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상동로97, 3층(대부북동)  
대표전화 (032)880-9994 팩스 : (032)880-9961  
홈페이지 www.daebudojournal.com  
E-mail\_ dj250407@naver.com  
입금계좌 : 신한 131-022-633961(대부도저널주식회사)

회장 양운영 대표이사/발행인 윤성용 편집국장 김태창 광고국장 김선중

등록번호 경기 다50794

구독료 월10,000원 | 1부 3,000원(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대부도저널 피싱클럽 회원모집

대부도에서 낚시를 떠나고 싶은데 섯 혼자 떠나기 망설여지시나요?

대부도저널 피싱클럽에서는 안산 대부도를 거점으로 전국을 무대로 생활낚시의 모든 장르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저널 피싱클럽과 함께 떠나시기 바랍니다.

### 저널 피싱클럽 소개

1. 활동내용 : 정기 출조, 낚시기술 공유, 친목도모
2. 낚시대상어종 : 우럭, 농어, 대광어, 갑오징어, 쭈꾸미, 문어, 백조기, 심해 갈치
3. 정기모임 일정 : 매월1회 정기 출조 (유어선 독배운영)
4. 대상 : 낚시를 좋아하는 모든 남,여 / 초보자 대환영 / 대부도 거점으로 서울, 경기권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 가능
5. 연락처 : 신문사 032-880-9994 / 이선화 과장 010-2535-2728

★동호회 혜택 : 초보자를 위한 낚시 장비 사용법 및 기초교육, 숙련된 회원들과 경험 및 노하우 전수

정기 출조 이벤트 및 선비 할인





# 토지분양

“안개처럼 고요한 물가, 마음이 스며드는 쉼의 공간”

1. 대부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건폐율 인센티브 30% 적용
2. 펜션 단지 전체 도시가스 사용, 펜션단지 내 도로 8M 확정
3. 서해의 낙조가 가장 아름다운 바닷가 최고의 전망
4. 사계절 인기 만점, 대부도 최고의 수익형 부동산



감성과 수익이 흐르는 부지  
대부도 말부흥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

**펜션부지 토지분양 말봉펜션타운** (옛 말봉바다낚시터 부지)

설계사무소 : 대부도측량설계사무소    시공사 : 양지개발

토지주 직접 분양 : (주) 말 봉    상담전화 032.886.1677    FAX 032.887.1677